

주민주도형 마을활동 거점 공간 기대

동구 학운동, ‘무꽃동 마을사랑채’ 개소·마을총회 개최
옛 어린이집 리모델링…소통방·공유 부엌·책 정원 구축

광주 동구 학운동에 주민중심 마을복
지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커뮤니티
공간이 개소해 주목받고 있다.

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학운
동 ‘무꽃동 마을사랑채’를 개소하고 마
을총회를 개최했다.

동구에서 두 번째 마을커뮤니티공간
으로 개소한 ‘무꽃동 마을사랑채 (의재
로43번길 6)’는 학운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종진)가 올해 광주시 마을공
동체 통합공모 사업으로 조성한 주민주
도형 마을활동 거점공간이다.

과거 이 공간은 구립 어린이집이었지
만, 문을 닫으면서 수년째 방치돼 있다
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커뮤니티 공
간 발굴 작업을 통해 알려지면서 리모델
링 후 지금에 이르게 됐다.

마을사랑채는 연면적 169.89㎡ 규모
로 다목적실, 3대소통방, 공유부엌, 동
구 책정원 등으로 꾸며졌다.

개소식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박준선 국회의원, 박종균 동구의회회장,
무꽃동주민협의회 회장 등 마을주민 20
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마을의 중년남
성들과 주민들이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는 ‘풀격 있는 신사들의 요리시간’
이 진행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개소식을 기념해 무꽃동주민협

의회(위원장 이종진) 주최로 주민자치 실
현을 위한 ‘무꽃동 마을총회’도 개최했다.

그동안 설문조사, 마을학교 등을 통해
발굴된 10개 의제를 대상으로 3개 의제
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도 실시됐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광주시 주민참여형 온라인플랫

폼 ‘마을e책적’ 어플을 통한 온라인 투
표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주민투표로 선정된 의제들은 앞으로
무꽃동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
민들과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
고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에 개소한 무
꽃동 마을사랑채가 주민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진정한 주
민중심 마을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공
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상생의 가치를
담은 마을사랑채가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학운동 15개 주요 마을
공동체 임원 등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협
의회 ‘무꽃동주민협의회’는 마을비전
계획수립을 위한 마을조사, 무꽃동 명작
학교 운영, 마을계획실천단 운영, 의제
발굴 등 마을자치를 위한 다채로운 활동
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공모를 통해 ‘무
꽃동’(무등산 꽃구름 마을)의 줄임말)
이라는 명칭을 발굴, 학운동 마을브랜
드로 사용 중이다. /오승지기자



광주시 마을공동체 통합공모 사업으로 조성한 주민주도형 마을활동 거점공간인 동구 학운동 ‘무꽃동 마을사랑채’가 지난달 26일 개소식을 갖고 마을총회를 개최했다. /광주동구 제공

동구 효 출동대 “어디든 달려갑니다”

2014년부터 1만1천430건 무료해결…효자손 노릇 ‘톡톡’

지역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든 달려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최
근 지역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다. 광주
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효 출동대’
가 그 주인공이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
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효 출동대’는 지난 2014년 발대식 이후

지금까지 1만1천430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하며 어르신들의 효자손 노릇을 톡
톡히 하고 있다.

효 출동대는 어르신들의 아주 작은 요
청이라도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어르신
들 스스로 하기 힘든 형광등 교체, 청소,
무거운 짐 옮기기 같은 일상적인 도움부
터 도배나 장판교체, 수도·전기 수리 등
전문적인 부분까지 아우른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동
행 등 이동서비스 제공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효 출동대를 이용한 유모 (80) 할
아버지는 “화장실 전등이 고장 나 고치
는데 많은 돈이 들까 봐 걱정했는데, 효
출동대 덕분에 간단히 해결했다”면서

“저처럼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에게 참
으로 고마운 존재”라고 후기를 전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도 다채롭다.

어르신과 대학생 봉사단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과도 연
계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집수리
를 돕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WHO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동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
한 서비스를 발굴·제공 중에 있다”면서
“백세시대에 걸맞게 앞으로도 효 출동대,
소통경로당, 우리마을백세친구사업 등 맞
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어
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효 출동대는 동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노인부부 세대 등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동 행정복
지센터나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
-4953)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승지기자

서구 ‘올해의 SNS 대상’

광주 서구가 (사)한국소셜콘텐츠진
흥협회 ‘제5회 2019 올해의 SNS’에서
기초자치단체 네이버밴드 (BAND) 부
문 대상을 수상했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올해의 SNS’는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
업과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들고
자 마련됐으며, 매체별 심사를 통해 소
통을 중시하는 개인 및 기관 소셜크리에
이터를 선정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에서 유일하게 밴드를 활
용해 소통하고 있는 서구는 밴드 채널의
특성을 살려 각 부서/동의 ‘소통담당관’
이 규정소식을 직접 전달하는 등 알차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18개 동주민센터
가 직접 관리하는 동 대표밴드를 함께

운영해 주민들에게 친숙한 매체로 인기
가 높으며 밴드를 통해 마을소식을 직접
알리는 등 6천여명의 구독자와 소통하
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내 손안
에 서구청’을 만날 때 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 우리동네 의원을 소개합니다-김태진 서구의원

지방자치 발전과 소통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설 것



을 선진지 견학 중 서
울여성프라자 화장
실에 무상생리대가
설치된 것을 보게 됐
다”며 “여성건강을
위한 권리를 부여하
기 위해 이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고, 지난 8월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되
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조례 개정으
로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상록도서관, 서
구청소년수련과, 서구청 3개 기관 여성
화장실에 1대씩 비상용 생리대 무료 자
판기가 설치됐다”며 “광주 자치구 중 최
초로 여성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
현할 수 있게 돼 보람찼다”고 소회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중 서구노인일자
리창출 조례를 발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은
퇴한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는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울 정도로
노인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직장
생활 은퇴 이후에도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
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고, 현재
지역에서 4천여명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미소 지었
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서울 여성친화마

이밖에도 김 의원은 동천동 주민 1천
명 서명을 받아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
한 뽀스 설치에 힘쓰고 있으며, 맛벌이
가정 자녀들의 돌봄 등에 대한 대안 마
련, 치평동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관련
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
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을 넘어 노동이 존중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겠다”며 “항상 구민을 섬기는 공복 자
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앞장서겠
다”고 밝혔다. /최환준기자

서구, 상무2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 발족

광주 서구가 최근 치매환자가 살아온
곳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해갈 수 있
는 환경 조성을 위한 상무2동 치매안심
마을 운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올바
른 교육과 더불어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에 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성공
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민·관 기관 및 단
체 등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운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들은 치매이
해 및 예방 관련 교육을 받고 치매에 대
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기회의와 활동
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리더로서 선구적
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환준기자

서구,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앞장’

광주 서구가 노후된 장애인 차량을 교체
하는 등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나섰다.
서구는 지난달 26일 한국건강관리협
회로부터 장애인 특화차량 제작지원금
을 기탁 받아 제작한 장애인차량 인수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기탁 받은 중형승합차량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전동리프트가 장착됐으
며, 휠체어 3대, 17인승 차량으로 중증장
애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있도록 제작된 특화차량이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기존 노후 차량
을 교체해 새로 구입된 것으로 중증장애
인들의 안전하고 편한 이동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최환준기자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